

농협 전남본부 무안 아동센터에 책·학용품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23일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운동’ 일환으로 무안군 지역 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상규)에 총 751권의 책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 축산농협 ‘통합마케팅 역량강화’ 사례발표



고객감동 경영실천 우수조합으로 선정된 광주 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최근 ‘통합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TMSP)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광주 축산농협 제공〉

호남대·필리핀 라살대 국제교류 협의 회의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은 21일 총장실에서 필리핀 라살대학교 프랑코 크리스토퍼 노큰(세번째) 부총장 일행과 국제교류를 위한 협의 회의를 가졌다. 〈호남대 제공〉

동신대 교직원 2학기 개강준비 모임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23일 오전 국제회의장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제2학기 개강준비모임을 개최했다. 〈동신대 제공〉

전기공사협-한전 ‘상생협력 안전전진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류재선)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형철)는 23일 한전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상생협력 안전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농사 비용 줄이고 고소득 올리도록 복지 지원”

최공섭 남평농협 조합장 비닐하우스 환풍기 설치 사업 눈길



농촌인구가 날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소득을 옮길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공섭(58) 남평농협 조합장은 최근 취임이후 1억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내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한여름 비닐하우스내 뜨거운 열기로 밖으로 배출해 온도를 낮춰 작물의 생육을 돋고, 농업인들의 작업능률도 올리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남평농협은 남평과 디오 관내 고령 독거노인을 위해 ‘9988 봉사단’을 운영,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봉사단은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복지기금 확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최 조합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경비를 절감해 저비용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영농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지역 학교급식 납품 확대와 직거래 택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조합장은 “농업인에게 더 많은 실익을 주는 다양한 환원사업과 복지사업을 펼쳐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하는 우리 농협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평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역임했으며, 최근 무투표로 당선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강진의료원, 정부지원 산부인과 11개월만에 100번째 출산

의료원에서 2.78kg의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아 결혼 1년여 만에 부모가 됐다.

이날 아기를 받은 문영주 산부인과 과장은 “100번째 아기를 내 손으로 직접 받아 봄 정말 기쁘다”며 “전남 서남부 거점 산부인과에 걸맞게 역할을 해내며 운영이 잘 되고 있어 뿐만 아니라”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 법인화

는 이날 김씨 부부에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비 20% 할인과 함께 산후조리 병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선별검사도 지원했다.

/충남도립대학 출신인 최 조합장은 1972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노안농협 전무,

남평농협 전무, 남평농협 상임이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의